

[ 사회 ]

오늘 '세계 금연의 날'



금연 광고 변천사

31일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정한 '제20회 세계 금연의 날'.

권유

(연예인들도 안 피우는데...)

자학

(자신의 머리 때리고 학대)

협박

(갈고리로 꿰고 폭파까지)

“스타들도 싫어해요”=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 광고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룹 ‘핑크’는 “담배, 젊은이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라고 유혹한다.

이들을 섬뜩하게 했다. 붉은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성이 멋진 남성에게 미소를 짓다가 홀로 남겨 된다는 설정인데, 담배 때문에 변색한 치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왕따’가 된다.

복지부는 이달 들어 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위로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라는 자막이 흐르는 ‘폭력’ 편을 내보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훨씬 충격적이고 엄격한 방법을 쓰고 있다. 영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금연광고(‘hooked’ 중독)에서는 흡연자들이 한 해 평균 5천 개의 담배를 피운다며 갈고리에 입이 꿰인 채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금연광고는 금연구역인 회사의 배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통해 날려버린다. 배란다가 폭파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이다.

박영석 광주시 남구보건소장은 “성인남자의 23.1%인 800만명이 흡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담배를 끊게 할 수만 있다면 협박형 광고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배가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은 크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운암 2단지 재건축 유효

“조합원 개인자격으로 계약 무효 주장 못해”

광주지법 민사6부 판결

광주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병하)는 30일 광주 운암 아파트 2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조합원 4명과 D개발이 운암 2단지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합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응부담 변경이 조합원의 재건축 계속 참가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규정 이 아닌 재건축조합 정관에 규정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한다”며 원고가 주장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요건’을 기각했다.

한시 등은 운암 2단지 재건축조합이 2005년 10월31일 조합원 1천357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사 체결과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하자 ‘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 같은 해 11월25일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명환 도교육위원 당선무효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유옥)는 30일 교육위원 선거 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위원 김명환(62)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6차례에 달하는 등 죄질이 중한 데다 범행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말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의 제3선거구(순천시, 장흥·고흥·보성·화순군)에 입후보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순천=김진숙기자 jsk2229@

‘지리산 버스 참사’ 오늘 영결식

보상액 합의, 추모장학회 설립

지난 25일 지리산 횡단도로에서 버스 추락으로 숨진 순천 매산중 학생 5명의 합동 영결식이 31일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에서 순천교육청장으로 엄수된다.

버스 등록 관리 제도를 개선키로 약속했다.

학교 측은 유가족들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액 2억2천여 만원(무과실일 경우·법원 배상 판결 기준)을 더하면 희생자 가족은 최고 2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의 경우도 상태에 따라 최고 2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순천 매산중 1학년 9반 학생과 교사 등 35명은 지난 25일 노고단 산행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던 중 버스 추락으로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중형 기자 galee@kwangju.co.kr

순천시는 지입차주 양성과 등 전세

한낮 더위 5월 31일 (음 4월 15일) 날씨예보. 맑은 가운데 오후 한 때 구름 많겠다. 광주, 서울, 부산 등 전국 날씨 정보와 기온, 강수량, 바람 속도 등 상세 정보.

금 원료 고성능 ‘CT 조영제’ 개발. 심장질환·간암 진단 효율성 높아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CT 조영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



‘광주교육발전 자문위’ 발족. 광주교육청은 30일 대회의실에서 ‘광주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김남순 조선대 교수·양희주 광주시 정책기획관·신현중 전 교육정보원장·양시복 변호사 등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전남 4개교 교장 공모 평균 5.25대 1 경쟁.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4개 학교의 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유동로터리 30m도로변, 상업지역. 마지막 1층 166평 임대.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 등 다용도 가능.

전통 침·뜸 공개 강좌. 공개강좌·설명회 6월 8일(금) 오후 2시. 전문과정 연수 후 중국침구사 및 중국자격증 취득.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